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3)
신성한 삼일성을 충만히 체험하고 누림

4/25 월요일

아침의 누림

마 28:19

19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롬 6:3

3 그리스도 예수님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십니까?

고전 12:13

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롬 6:4-5

4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장사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5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랐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 안에서 그분과 연결되어 자랄 것입니다.

갈 3:26-29

26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7 이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입니다.

28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고, 노예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29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이며 약속에 따른 상속자들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8 장 19 절에서 ... 세 위격,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분명히 언급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말할 때 '이름'은 원어에서 단수형이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셋이시지만, 이름은 하나라는 의미이다. 세 위격이지만 한 이름을 가진다는 이것은 참으로 비밀스럽다. 물론, 이것이 바로 '하나 안의 셋', 곧 '삼일'이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이다. ... 이 이름은 셋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포함하며, 하나님께서 '하나 안의 셋'이심을 말해 준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 ...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방면이 있으시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70 년, 3 권,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삼일 하나님에 관하여, 1 장, 48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왕국 복음인 마태복음의 결론에서 주님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격) 안으로 침례 받았음을 계시하셨다(28:19). ... 이 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신성한 존재의 총체이며, 그분의 인격과 동등하다. 사람들을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 주는 것은 그들을 삼일 하나님의 인격 안으로 이끌어, 이 신성한 인격과 유기적인 연결을 갖게 하는 것이다. 삼일 하나님과 우리의 유기적인 연결은 우리를 삼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누림과 부요한 체험 안으로 이끈다.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13 장, 183 쪽)

침례는 회개한 사람들의 옛 생명을 종결하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그들을 받아시킴으로써, 그들을 옛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태 안으로 이끌어 왕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죽음과 부활의 과정을 통과하시고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신 후, 그분의 제자들에게 제자로 삼은

사람들을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 주라고 명령하셨다. ...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침례를 명령하신 후 얼마 되지 않아, 오순절 날(행 1:5, 2:4)에 그리고 고넬료의 집(11:15-17)에서 제자들과 온 교회를 성령 안에 침례를 주셨다(고전 12:13). 그 후 이것에 근거하여 제자들은 새로 주님께 돌이킨 사람들(행 2:38)에게, 보이는 방면에서 물속으로 침례를 주었을 뿐 아니라, 또한 보이지 않는 방면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롬 6:3-4), 그리스도 자신 안으로(갈 3:27), 삼일 하나님 안으로(마 28:19),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고전 12:13) 침례를 주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를 상징하는 물은 침례받는 사람들의 역사를 종결하는 무덤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고 그리스도께서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며 삼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새로운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그리스도 자신 안으로, 삼일 하나님 안으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주는 것은 단 한 가지 일을 이루는 것이다. 곧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면에서는 그들의 옛 생명을 끝내고, 긍정적인 것을 이루는 면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그들을 새 생명, 곧 삼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받아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8 장 19 절에 있는 주 예수님께서 정하신 침례는 천국을 위하여 사람들에게 그들의 생명에서 나와 몸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도록 침례 주는 것이다.

마태복음 28 장 19 절에 있는 '안으로'라는 단어는 로마서 6 장 3 절, 갈라디아서 3 장 27 절, 고린도전서 12 장 13 절에서처럼 연결을 가리킨다. ... 사람들을 삼일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 주는 것은 그들을 그분과의 영적이고도 비밀한 연결 안으로 침례 주는 것이다. ... 믿는 이들을 삼일성의 이름 안으로 침례 주는 것은 그들을 삼일 하나님의 온 존재 안으로 잠기게 하는 것이다. (신약의 결론, 믿는 이들 1, 24 장, 300-30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13 장;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72 장

4/26 화요일

아침의 누림

마 28:19

19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엡 1:13

13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 찍혔습니다.

고전 15:45b

45b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엡 3:8, 10

8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10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엡 4:15-16

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고후 3:17

17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요 15:4-5, 7

4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5 나는 포도나무요,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7 여러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 장 19 절에 기록된 명령을 주셨던 그대에, 그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죽으셨고, 장사되었으며, 음부로 들어가셔서 죽음의 권세와 죽음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이기셨고, 죽음에서 나오셔서 부활 안으로 들어가셨다. 더 나아가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로서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분 자신을 이미 제자들 안으로 붙어 넣으셨다(요 20:22). 이 모든 것을 하신 후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그분의 제자로 삼고, 그들을 삼일 하나님 안으로 이끌어 그분과 유기적인 연결을 가질 수 있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 믿는 이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 주는 것은 사실상 그들을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 주는 것이다. (신약의 결론, 믿는 이들 1, 24 장, 301-30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성령 안의 침례라고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신약에서 '침례'라는 단어는 그 영 안의 침례의 의미를 포함하는 '물을 통한 침례'를 가리킨다. ... 마태복음 28 장 19 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침례 ... 곧 믿는 이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 주는 것은, 그들을 물속에 침례 주고 또한 그 영 안에 침례 주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우리는 믿는 이들을 물속에 침례 주지만, 물은 신성한 이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상징한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침례의 물속으로 넣을 때, 삼일 하나님의 인격 안으로 그들을 넣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태복음 28 장 19 절에서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는 이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라고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 후에 실행에서 믿는 이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이것은 주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 받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 받는 것과 같다는 것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은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시기 때문이다(골 2:9).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 줄 때, 사실상 그들을 삼일 하나님 안으로 침례 주고 있는 것이다. (신약의 결론, 믿는 이들 1, 24 장, 302-303 쪽)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고전 15:45 하).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육체 되심 안에서 한 사람이 되셨다(요 1:14). 사람이 되신 분으로서 그분은 또한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다. 이 생명 주시는 영은 삼일 하나님의 총체, 곧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시다.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그분은 아들이시며, 이 아들 안에 아버지께서 체현되셨다. 이와 같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은 생명 주시는 영과 함께하시며, 이 생명 주시는 영은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시자 총체이시다.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영이 계시고, 이 내주하시는 영께서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삼일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내주하시는 영으로서,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도장 찍으시어(엡 1:13), 곧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 존재의 풍성을 그리스도의 지체들인 믿는 이들 안으로 나누어 주시고

분배하시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조성하시고 건축하신다(엡 3:8, 10, 4:16). 내주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영은 도장 찍으시는 영이시다. 도장 찍는 도장의 먹은 도장 찍힌 재료를 적신다. 우리는 도장 찍힌 재료이며, 도장 찍는 먹이신 그 영은 우리를 적시신다. 이러한 적심, 이러한 도장 찍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다. (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 2 장, 34, 36-3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 2 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77년, 3 권, 거룩한 말씀 안에 있는 주관적인 진리들, 4 장

4/27 수요일

아침의 누림

고후 13:14

14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고전 15:10

10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일 4:8-11

8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9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10 사랑은 이렇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11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고전 1:9

9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통 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행 2:42

42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꾸준히 머물며, 떡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꾸준히 계속하였다.

고후 1:12

12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단일성과 순수성으로 처신하였고 육체에 속한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여러분을 대할 때는 더욱 그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고후 4:15

15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더 많은 사람을 통하여 풍성해진 은혜로 감사가 넘쳐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후 8:9

9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유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신성한 삼일성이 우리의 누림을 위한 분이심을 보여 준다. 고린도후서 13 장 14 절은 ... 은혜와 사랑과 교통, 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것은 세 방면을 가진 한 가지 것이다. 근원은 신성한 사랑이고, 과정은 신성한 은혜이며, 흐름은 신성한 교통이다.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가

흘러나온다. 그런 다음 이 은혜는 그 영의 교통 안에서 흐른다. 고린도후서 13 장 14 절은 우리에게 세 방면에서 본 세 위격, 곧 사랑과 은혜와 교통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영을 보여준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근원이시고, 은혜이신 그리스도는 과정이시며, 교통이신 그 영은 흐름이시다.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에서 우리의 삼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흐르시는 것을 본다. 삼일 하나님은 구속된 백성에게 그분 자신을 음료와 음식으로 공급하기 위해 흐르신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을 통하여 풍성한 공급이신 삼일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하였을 때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나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삼일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며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있다.(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 2 장, 29-3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신성한 삼일성을 충만히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에 참여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3 장 14 절은 ... 신성한 삼일성이 신학의 교리적인 연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과 누림을 위한 것임을 보여 준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근원이고, 아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다. 사랑이 나올 때 그것은 은혜가 된다. 그 다음 성령의 교통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전달이다.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사랑의 흘러나옴인 은혜는 아들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교통은 성령의 전달로서, 은혜이신 아들의 존재와 사랑이신 아버지의 존재를 전달해 준다. 성령은 우리 존재 안으로 신성한 풍성을 전달해 주신다. 이 전달이 교통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 안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신성한 삼일성을 갖고 있다.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13 장, 184-185 쪽)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 자신이다(요 1:17, 고전 15:10).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이다(요일 4:8, 16). 그 영의 교통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전달하시는 그 영 자신이다. 이것들은 분리된 셋이 아니라 하나의 세 방면이다. 이것은 마치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께서 분리된 세 하나님이 아니라 ‘나누어지지 않고 나눌 수도 없는 동일한 한 하나님의 세 위격들’(필립 샤프)이신 것과 같다. 하나님의 사랑은 근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원이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표현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그 영의 교통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영께서 하나님과 주님을 함께 전달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삼일 하나님—아버지, 아들, 성령—과 그분의 신성한 미덕들을 체험하고 누리도록 하려는 것이다. … 주님의 은혜가 먼저 언급된 것은(고후 13:14) 이 책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1:12, 4:15, 6:1, 8:1, 9, 9:8, 14, 12:9). 빛나가고 혼돈되었지만 위로를 받고 회복된 고린도의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세 가지 미덕들—사랑, 은혜, 교통—을 지닌 신성한 속성과 세 신성한 위격들—아버지, 아들, 영—을 지니신 삼일 하나님이 필요했다. (고린도후서 라이프 스타디, 59 장, 551-55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고린도후서 라이프 스타디, 59 장

4/28 목요일

아침의 누림

요 3:16

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요 1:17

17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실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요 1:14, 16

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총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16 우리가 다 그분의 총만에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였다.

요 4:14

14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요 7:38-39

38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그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39 이것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받을 그 영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영께서 아직 계시지 않았다.

고전 16:23-24

23 주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24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요일 4:9-10

9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10 사랑은 이렇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의 아들을 우리의 죄들에 대한 화해 제물로 보내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표현된다. 이 은혜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은 감추어진 근원이다. 사랑이 표현될 때, 그것은 은혜가 된다. …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기원이신 하나님께 거슬러 올라갈 때 이 은혜는 사랑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 표현될 때 이 사랑은 은혜가 된다. 은혜는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은 은혜의 근원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 … 신성한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것은 은혜가 된다.(신약의 결론, 영문판, 322 장, 3246-324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아들 그리스도의 은혜는 믿는 이들에게 전달되도록 영 하나님의 교통 안에 있다. 바로 성령의 교통을 통해 은혜가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다. 성령의 교통은 성령의 전달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며, 이 은혜는 성령의 교통을 통해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에게 전해지며, 우리 안으로 전달된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교통 안에 있어야 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다. …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교통 안에 있어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될 것이다. (신약의 결론, 영문판, 322 장, 3247 쪽)

신성한 삼일성에는 근원과 과정과 흐름이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삼일성의 순환의 근원 곧 원천은 아버지의 사랑이다. 이 순환의 과정 곧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에 의해 표현되고 우리에게

전달되는 바로 그 은혜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근원인 아버지의 사랑에서 나온다. 흐름은 아버지의 사랑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교통과 전달과 순환이신 성령이다.

우리 안에는 두 순환이 있다. 하나는 우리의 물질적인 몸 안에 있는 피의 순환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신성한 삼일성의 순환이다. 이 순환들 중 하나라도 없다면, 우리는 신체에 있어서든지 또는 영적인 면에서든지 죽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13 장 14 절은 우리에게 이런 내적이고도 영적인 순환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해 준다. 이러한 순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생활 안에서 공급이 된다. 이것은 전기의 흐름이 도시 전체에 전기의 공급이 된다고 말하는 것과 유사하다. 오늘날 이 지구상의 모든 대도시는 전기에 의존한다. 수년 전에 뉴욕시에 전기의 흐름이 일정 시간 동안 끊겼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도시의 전체 생활이 중단되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예이다. 우리는 교회생활 전체가 고린도후서 13 장 14 절에 달려 있음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 교회생활은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은혜와 그 영의 교통이 우리의 영 안에서 전류처럼 흐르는 것에 의존한다.

많은 때 나는 말씀을 공급하고 있는 동안 신성한 전류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내적인 느낌을 갖는다. 내 속의 흐름이 멈추면, 나는 할 말이 없다. 우리가 말할 때에 그 영을 놓친다면, 우리의 말함은 공허하다. 더욱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 우리 안의 흐름이 끊어진다면, 우리의 듣는 것 역시 공허하다. 우리는 흐름 안에서 말하고 흐름 안에서 들을 필요가 있다. 그 흐름은 성령의 전달이고, 이 전달은 삼일 하나님의 사랑의 흘러나옴인 아들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하는 교통이다. 고린도후서 13 장 14 절에 계시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삼일성의 흐름은 우리의 영적인 맥박이다.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13 장, 185-18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영문판, 322 장

4/29 금요일

아침의 누림

계 1:4-5

4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께서, 또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께서,

5 또 신실한 증인이시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안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우리의 죄들에서 해방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계 3:1

1 사데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의 일을 안다. 네가 살아 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사실 죽어 있다.'

계 4:5, 10

5 그 보좌에서 번개와 음성과 천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에는 일곱 등불이 타고 있었는데, 이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10 스물네 장로가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무궁히 살아 계신 분께 경배하고, 자기들의 금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출 25:37

37 그리고 등잔 일곱 개를 만들고 그 등잔들을 올려놓아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해야 한다.

민 8:2

2 "너는 아론에게 전하여라. 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네가 등잔들을 올려놓을 때, 등잔 일곱 개가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여라.'"

속 3:9

9 여기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아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다.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없애겠다. 만군의 여호와와의 선포이다.

속 4:2, 7

2 그가 내게 말하였다. "무엇이 보입니까?" 내가 대답하였다. "온통 금으로 된 등잔대가 보입니다. 그 꼭대기에는 대접이 있고 등잔대 위에는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꼭대기에 각 등잔들을 위한 일곱 관이 있습니다.

7 큰 산아, 네가 무엇이나?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가 될 것이다. 그가 꼭대기 돌을 내어놓을 때에, 사람들은 '은혜, 은혜가 그 돌에 있다!'라고 외칠 것이다.' "

우리가 신성한 삼일성을 충만히 누리는 것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신 아버지와 일곱 영과 신실한 증인이시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은혜와 평안으로 완성된다(계 1:4-5).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신 삼일 하나님이고, 평안은 우리가 은혜를 누린 산출물 곧 결과이다. 우리는 우리의 은혜이신 삼일 하나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안에 더욱더 평안을 갖게 된다. 요한계시록 1 장에서 아버지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으로 언급되신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과거에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것이다. 이것은 심지어 아버지 자신이 삼일이심을 보여 준다. 그분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으로서 삼일이시다. 일곱 영은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이시다. 한 영께서 일곱 배로 강화되셨다. 일곱 배의 영은 일곱 단계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등에 비유될 수 있다. 일곱 단계로 밝기를 조절하는 이러한 등은 우리에게 가장 강한 빛 곧 강화된 빛을 준다. 오늘날 그 영은 어두운 시대 때문에 일곱 배로 강화되셨다.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13 장, 187-18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은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이것이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이다. 히브리어에서 여호와라는 “나는 ‘나는 -이다’이다.”라는 의미이다. 그분께서 ‘나는 -이다’이신 것은 그분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신 것을 뜻한다. ‘나는 -이다’라는 칭호는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가리킬 뿐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그분이 모든 것이심을 가리킨다. 여러분에게 생명이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생명이시다. 여러분은 빛을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빛이시다. 여러분은 거룩함을 갈망하는가? 하나님께서 거룩함이시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며, 그분은 모든 것이시다.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타디, 4 장, 49 쪽)

요한계시록에서 그 영은 교회의 타락에 대항하시기 위하여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을 뜻하는 일곱 영(1:4, 4:5, 5:6)으로 불리신다. 요한계시록 1 장 4 절에서 일곱 영은 의심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이시다. 왜냐하면 일곱 영께서 삼일 하나님 가운데 함께 나란히 계시기 때문이다. 일곱은 하나님의 운행이 완전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수이므로, 일곱 영은 땅에서의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분이심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영은 그 본질과 존재에서는 하나이다.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실 때에 그 강화된 기능과 일에서 일곱 배가 되신다. 이것은 스가랴서 4 장 2 절에 있는 등잔대와 비슷하다. 그 등잔대는 존재의 면에서는 하나이지만, 기능의 면에서는 일곱 등불이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는 이미 타락했고 시대는 어두웠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이 필요했다.

‘일곱 영’이라는 칭호는 그 영께서 일곱 배로 강화되었음을 가리킨다. 이 영은 그영의 모든 요소들, 곧 신성과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과 실재와 생명과 은혜 등을 강화하신다.

요한계시록 4 장 5 절에 있는 일곱 등불은 출애굽기 25 장 37 절과 스가랴서 4 장 2 절에 있는 등잔대의 일곱 등잔을 가리킨다.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며, 하나님의 일곱 배로 강화되신 영께서 비추시고 살피시는 것을 의미한다. 출애굽기 25 장과 스가랴서 4 장에서 일곱 등잔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하나님의 영께서 비추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이다. 즉, 성막의 건축이나 성전의 재건을 위한 것이다. 요한계시록 4 장 5 절에서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것인데, 이 심판 또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건축 곧 새 예루살렘의 건축을 가져올 것이다. (신약의 결론, 성령,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칭호(3), 120-12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장로 훈련, 2 권, 주님의 회복의 이상, 10 장;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타디, 4 장

4/30 토요일

아침의 누림

계 5:6

6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 한가운데에, 그리고 장로들 한가운데에 갓 죽음을 당하신 것 같은 한 어린양께서 서 계셨습니다. 그 어린양은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셨는데, 이것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일곱 영입니다.

골 1:18

18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계 5:5, 12-13

5 그러자 장로들 중에 하나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일곱 봉인을 뗄 수 있습니다.”

12 그들은 큰 음성으로 말하였습니다. “죽음을 당하신 어린양은 능력과 풍성과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13 또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양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골 1:15-17, 19-20

15 이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16 왜냐하면 만물, 곧 하늘들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좌들이나 지배 권위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 다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으며, 또한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그리고 그분께 이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17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19 왜냐하면 모든 총만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며,

20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들에 있는 것들을 그분을 통해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구속하는 어린양으로서 그리스도는 감찰하고 살피는 일곱 눈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주에 집행하여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함으로 완결될 것이다. 그러므로 스가랴서 3 장 9 절에서 그리스도는 돌, 곧 하나님의 건축을 위하여 일곱 눈을 가지고 있는

꼭대기 돌(4:7)로 예언되셨다. 이 일곱 눈은 온 땅에 보내어지신 하나님의 일곱 영이며, 이 일곱 영은 '온 땅을 두루' 다니신다(속 4:10).

어린양의 일곱 눈이신 일곱 영은 또한 주입하기 위해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일곱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일곱 영인 이 일곱 눈은 그리스도의 요소를 우리 안으로 주입할 것이다. ...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동안에,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분의 눈이신 일곱 영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주입하시어 우리를 변화시키신다.(신약의 결론, 성령,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칭호(3), 121-12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 1 장 5 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신실한 증인'으로 계시되신다. ...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증인이시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거나 보거나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은 그분에 의해 증언되신다. 그분은 신격 전체의 증인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신실한 증인이시라는 것은 그분의 삼십삼 년 반 동안의 땅에서의 삶을 가리킨다. 그분은 하나님의 증인이시자 증거이시자 표현으로서 그분의 인간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증언하셨다(계 3:14). ...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누구이신지 궁금해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을 증언하셨다. 하나님의 살아 있고 신실한 증인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시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이 우주 안에는 한 사람이 계시는데, 이분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사셨을 때 하나님의 증거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증거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 존재를 볼 수 있다(요 1:18).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과 행위로뿐 아니라 그분의

존재로 하나님을 증언하신다. 그분의 존재가 곧 하나님의 증거이다.

우주 안에서 ... 첫째로,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둘째로, 그분은 이러한 존재하는 것들 중 어떤 것들을 부활시키시어 다른 범위이자 다른 영역, 즉 부활의 영역 안으로 이끄셨다. ... 골로새서 1 장 15 절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라고 말하고, 요한계시록 1 장 5 절은 그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라고 말한다. 그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뒤따를 것이다. 여기에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 먼저 나신 분'이라는 표현은 부활 안에서의 하나님의 창조를 가리킨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에 시작이 있었고, 부활 안에서의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에 또 다른 시작이 있었다. 거듭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두 번째 창조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체험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라는 것은 그분의 부활을 가리킨다. ... 나사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했지만(요 11:43-44), 그의 부활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다. 후에 그는 죽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에 있어서는 죽음이 끝났다. 그분은 영원토록 사실 것이다(계 1:18). 그러므로 그분은 참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더 나아가 땅의 왕들의 통치자로 제시되신다(계 1:5). 먼저 그분은 신실한 증인으로서 이 땅에 사셨다. 그런 후 그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새 창조물인 교회를 위해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 되셨다. 오늘날 승천 안에서 그분은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시다. 그분은 땅의 왕들의 통치자로서 땅, 곧 전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통과하신 후에 그분은 보좌에 앉으시어 모든 왕들 위에 계신다.(신약의 결론, 영문판, 404-405 장, 4118-4119, 4121-412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영문판, 404-405, 407 장

5/1 주일

아침의 누림

요 1:18

18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으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요 11:43-44

43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사로, 나오시오!"

44 죽었던 그가 나왔는데, 손과 발은 천으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풀어 주어 다니게 하십시오."

골 1:9-11

9 그러므로 우리도 그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를 바라며, 10 또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앎으로써 자라기를 바랍니다.

11 또한 우리는 여러분이 그분의 영광의 권능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기를 바라며,

골 2:2, 10

2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짜여, 깨달음에서 오는 넘치는 확신으로 온전히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됩니다.

10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그분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골 3:10

10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에 따라 온전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골 4:12

12 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이며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성숙되어 견고히 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있어서 확신이 가득하게 되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여러분을 위하여 분투하고 있습니다.

608. 참 기묘해

1 참 기묘해 아버지 아들 성령 셋이나 본질 한 영이실세 영광일세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 되서

(후렴)

삼일 하나님 우리 모든 것 참 기묘한 자랑일세
신성의 성분 쓰고도 남네 높고 귀한 영광일세.

2 참 풍성해 성부는 모든 근원 모든 것 주셔 누리게 하네
아 복되네 다함이 없는 뉘를 끝없이 써도 여전히 남네

3 참 기묘해 성부 표현인 아들 육신 안에 인류와 동거해
참 놀라운 십자가 구속으로 죄인들이 주와 하나 되네

4 참 기묘해 아들의 변형인 영 우리 영에 와 생명 공급돼
기쁨일세 영과 영 연합하여 두 영이 한 영 되어 접촉해

5 참 실재세 하나님 모든 것이 영 안에 담겨 내 안에 왔네
기이하네 주 우리와 하나 돼 그 생명 성품 떠나지 않네

악보 / 음악 (한 447 / 영 608)

<http://khymnal.org>

2022. 5. 2 ~ 2022. 5. 5
단체로 읽을 말씀: “교회의 정통”, 3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13 장
마태복음 라이프 스타디, 72 장
신성한 계시의 중심 노선, 2 장
고린도후서 라이프 스타디, 59 장
신약의 결론, 영문판, 322, 404 장